

## News

### 은행 대출금리 급등세 '주춤'…기준금리 인상 후 더 오를 듯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급등세, 은행채 등 시장금리의 전반적 하락으로 다소 진정 중… 이달 말과 내년 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변수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31~4.839% 수준,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오히려 감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 확대, 우대금리 축소 조치 영향

### 한은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 "인플레 잡으려다 성장 발목"

서울신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전문가들, 속도조절론 제기

KDI, 최근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 잡을 우려 존재 언급… 오히려 대출자들의 부담 가중 우려

### 시중은행 부실 대응력 역대급? …금융지원 '착시현상'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부실 여신 대응여력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개선해 13년 만에 최고 성적 기록… 4개 은행의 평균 NPL커버리지비율 164.3%로 지난해 말보다 16.2%p 상승 다만 부실채권 대비 적립한 충당금은 3분기 말 기준 5조 716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어… 충당금 증가보다는 잠재적 부실이 줄어든데 따른 지표 개선

### 우리금융지주 매각 지분 입찰 이번주 마감…매각 예정가 이목

이투데이

예금보험공사, 18일 오후 5시에 우리금융 매각 지분 입찰제안서 마감… 낙찰자는 이달 22일에 선정할 계획

금융위가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던 작년 12월 30일 종가 9,730원… 지난 12일 종가는 13,150원으로 35.1% 증가… 예정가격은 입찰 마감 직전에 결정

### 비급여 진료비 보장하는 '실손보험'…일부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더 올라

한국경제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 명 가운데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만 76만 명… 연말까지 실손보험 적자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업계는 손해율이 가장 높은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 이전 판매) 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크게 인상 중…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사례 증가 중

### GA채널 건강보험 생·손보 각축전 내년에도

한국보험신문

올 하반기 들어 생보사가 높은 수수료와 보장확대 전략으로 반격하며 손보사 건강보험 비중이 65% 정도로 하락… GA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수수료 경쟁력, 특약 수 증가 영향…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하, 보장 강화 등 전략으로 맞대응…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건강보험 보장 급부를 강화 중

### KTB·한양 등 중소 증권사도 올 영업익 1,000억 육박

서울경제

중소형 증권사들도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실적 기록 중… KTB투자증권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7% 급증

한양증권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6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성장… 올해 유례없는 증시 호황 영향

### 증권사 20곳에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서울파이낸스

금융위,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총 20개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시작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예상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